

광주 고교 강제배정 피해학생 일부 구제

시교육청, 전학 요청자 중 10여명 재배정 결정

신청못한 학부모들 “입학 후에 한다더니…특혜 아니냐” 반발

광주지역 고교 강제 배정 피해 학생 일부가 구제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등학교 전·편입학 심사관련위원회를 열어 교육환경전환심사(전학)를 요청한 27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중 23명을 재배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10여명 가량은 강제 배정 피해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학교폭력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전학이 불가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환경전환심사를 통한 구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장희국 교육감에게 강제 배정 피해를 호소했던 한 학부모는 “장 교육감이 면담에서 일단 배정된 고교에 입학한 뒤 환경전환심사를 신청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미 개최했다니 학부모들을 속인 것 아니냐”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건 특

혜”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환경전환 신청 하려 교육청에 갈더니 한 장학사가 그런 것은 없다고 해 돌아왔는데 이미 열었다니 어처구니 없다”며 “무더기 신청이 두려워 쉬쉬하며 서둘러 개최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교육환경전환심사는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학교폭력이나 신신장애·주거지 이전에 따른 원거리 통학 등 전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장이 시교육청에 요청하면 열리게 된다. 심의 건수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열리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최된다.

이번 심사는 고교에 입학하게 되면 단일학군으로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탓에 입학 전 서둘러 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전환심사를 개최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록기자 jwpark@kwangju.co.kr

방학중 감차

광주시내버스

내일부터 정상운행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이유로 감차 운행을 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광주시내버스가 내달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광주시는 “각급 학교의 개학시기에 맞춰 오는 3월 1일부터 겨울방학 이전 수준인 94개 노선 930대의 시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9일간 41개 노선 73대(7.8%)를 감차 운행했었다.

시는 방학기간 감차에 따라 대형버스가 운행되는 간선은 1~3분, 중형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3~4분 정도 배차간격이 늘어난다고 밝혔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10분 이상 버스가 늦게 오면서 시민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는 이번 증차 운행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노선은 운행간격이 2~3분 단축되고,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노선은 2~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노선별 시간표는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bus.g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학교를 경유하는 간선노선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집중 증차를 통해 운행간격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시내버스는 94개 노선에서 930대가 1월 9611회를 운행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카지노학과 오리엔테이션

27일 효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2013 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갖고 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연 가운데, 호텔 경영학과 신입생들이 카지노 실습실에서 룰렛 게임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선 학교, 학교폭력 기재 어찌할꼬

교과부 “거부시 중징계” 시교육청 “보류” 맞서

오늘까지 기재 시한 불구 교사들 ‘딜레마’ 빠져

학교폭력 사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일선 학교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기재 마감 시한(2월 28일)이 임박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각 ‘기재 보류’와 ‘거부시 중징계’라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청 말을 듣자니 교과부 징계가 두렵고, 교과부 말을 듣자니 교과부 징계가 두렵고, 교과부

부 말을 듣자니 교육청으로부터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탓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28일까지 학교폭력 사설 여부를 학생부 기재를 마쳐야 한다. 학생부 기재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 여부를 놓고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징계가 달라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생활부 기재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각각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 학교에서도 일부 담임교사는 기재하고, 일부는 기재하지 않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소신에 따라 기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기재 보류’

지침을 내리면서 징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비난이 일고 있다.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그로 인해 교과부

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있고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보류 지침을 내린 것”이라면서 “하지만 교과부 징계를 따라 기재해도 때마는 기재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록기자 jwpark@kwangju.co.kr

리엔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전남청은 또 여수·순천에 이어 보성, 담양 등을 들며 이미지를 훌어내기 위한 권역별 간담회도 실시중이다.

연일 결의대회·워크숍·자정선언 등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순천경찰은 27일 ‘정의로운 전남경찰’을 만들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찰 현장 릴레이 낭독, 첫 근무 때의 마음을 되새기는 ‘초심 계첨’ 등의 이벤트도 진행했다.

현직 경찰의 금고털이·성폭행 등 비리가 잇따랐던 여수경찰은 지난 21일 전 직원이 참여, 신뢰회복 및 반부패 청렴 운동에 솔선 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

/김지율기자 dok2000@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증한 엄부 및 스트레스로 치친 일상에 힐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첫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자버섯다실체 추출물, 율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 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찾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

